

외국어교육 환경에서 영어습득을 위한 읽기유창성과 정확성에 관한 연구

신규철
극동대학교 교양대학

Reading Fluency and Accuracy for English Language Acquisition in EFL Context.

Kyu-Cheol Shin
College of Liberal Arts, Far East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어 읽기의 유창성과 정확성의 언어습득적 의미를 고찰하고, 효율적인 영어 학습 패러다임을 연구하는데 있다. 언어습득 측면에서, 제 2언어학습의 정확성과 유창성사이에서 무엇을 우선 가르치느냐의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제 1언어와 제 2언어의 교실상황에서, 많은 언어연구자들의 관심 때문에, 유창성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정확성과 유창성은 둘 다 중요하지만, 외국어의 경우, 유창성 중심의 학습에서 정확성 중심의 학습으로 점진적인 학습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외국어의 유창성 개발을 위한 대안으로 자발적다독법을 제시하고 있다. 빠르고 정확한 단어 인지 기술과 읽기 유창성이 없으면, 좋은 읽기 능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유창성 개발을 위한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것에 대한 해법으로, 자발적다독법이 외국어 교육상황에서 읽기유창성을 위한 효과적인 연구방법론임을 입증하고 있다.

주제어 : 읽기 유창성, 정확성, 다독, 큰소리 읽기, 외국어 교육상황.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efficient foreign language learning paradigm with a focus on reading fluency and accuracy. From a perspective of language acquisition in the foreign language context, the priority in the L2 learning between accuracy and fluency has been a very important issue. Fluency becomes an important issue due to many researchers' interests in the L1 and L2 classroom. Although both accuracy and fluency are crucial, the paradigm shift from fluency to accuracy is necessary in the foreign language teaching. In this context, as an alternative methodology for L2 learners' fluency, the extensive reading approach is provided. A number of studies have suggested that extensive reading program could lead to improvement of L2 learners' reading rate and is an effective approach to improving general language proficiency.

Key Words : reading fluency, accuracy, extensive reading, read aloud, EFL context.

1. 서론

본 연구는 외국어환경에서의 영어(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를 학습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습득하기 위하여, 읽기의 유창성(Fluency)과 정확성(Accuracy)

을 어떻게 균형 있게 가르치고, 두 요소 중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이론적 토대와 함께 제 2언어습득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있다. 또한, 제 2언어의 유창성과 정확성의 특징을 논의하고, 언어본질의 분석을 통하여, 모국어습득의 원리를 통한 바람직한 제 2언어 학습방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17 Far East University Research Grant (FEU2017R08).

*Corresponding Author : Kyu-Cheol Shin(811shin@kdu.ac.kr)

Received February 13, 2018

Revised March 2, 2018

Accepted March 20, 2018

Published March 28, 2018

법이 유창성을 우선적으로 교육하는 것임을 규명한다. 이런 관점에서,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언어의 자동성과 습득원리를 바탕으로, 정확성과 유창성의 언어 습득적 개념을 정립하고, 과거의 연구사례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영어교육의 방법론으로, 학습자 중심의 다독(Extensive Reading)이 효과적인 교육 방법임을 증명한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은 유창성교육에서 정확성교육으로 순차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올바른 의사소통적 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언한다. 제 1언어나 제 2언어 교실환경에서, 많은 언어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유창성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능숙한 읽기능력은 빠르고 정확한 단어 인지기술이나 읽기유창성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 하다[1]. 그러므로 유창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에 대한 해법으로, 다독을 통한 교육적 접근법이 효율적인 대안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독은 제 2언어 학습자의 읽기속도의 향상을 가져 올 뿐 만 아니라, 일반적인 언어의 구사능력도 가져다준다. 다독의 목표가 학습자의 능숙하고, 유창하고, 독립적이며, 자신있는 독해자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독은 외국어교육에서 유창성 개발에 특히 중요한 방편이 되고 있다. 다독을 하면서 학습자에게는 많은 양의 이해 가능한 자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읽기속도는 텍스트의 내용을 즐기며,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점에서, 유창성 훈련은 문법이나 구문연습과 같은 정확성훈련 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제 2언어 학습자에게는 제 1언어를 습득하는 과정과 같이,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적 접근법과 유창성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많은 언어학자들이 규명해 왔던 제 2언어의 정확성과 유창성의 의미를 논의하며, 읽기 유창성의 발달사적 접근법과 연구사례를 토대로, 효율적인 영어교육 패러다임을 제언한다. 그리고 외국어교육 상황에서 효율적인 유창성 개발을 위한 대안으로, 학습자 중심의 다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에서, 정확성에서 유창성의 순서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제 2언어의 유창성과 정확성은 언어학습에서 모두 중

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모국어처럼 제 2언어를 완성하려면 어떤 순서로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 이 문제는 많은 언어학자나 영어교육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도 하다. 모국어습득 원리에 근거해 보면, 영어를 처음 말하려고 시작할 때, 단지 말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제 2언어학습자도 모국어 학습자처럼, 단어들을 먼저 표현해 내려는 용기가 있어야 하며, 문장으로 조합하기 시작 해야만 한다. 이렇게 문장을 창조하려고 할 때, 비로소 영어도 자연스럽고 더욱 정확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말할 수 있는 유창성이 습득되지 못하면, 어법을 고칠 수 있는 정확성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언어형태소를 단순히 고치고 암기하는 정확성보다,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으로 내용을 표출하는 유창성의 영역이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언어습득에서 유창성이 정확성보다 습득하기가 어렵다. 모국어 습득 상황에서는 아동들도 수많은 어휘와 규칙을 머리에 둔 상태에서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확성은 유창성의 한 보완재 역할을 한다. 정확성과 유창성은 동시에 가르칠 수 없다. 정확성 중심의 활동에서는 학습자의 언어를 교정하고, 원어민처럼 따라하게 하고, 학습자끼리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행위를 만드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반면에, 유창성을 증가시킬 때는 그러한 수정이나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유창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교사의 역할은 빠른 언어를 독려하고 도와주는 것이며, 오류를 범하는 것과 관련해 학습자가 갖게 되는 걱정이나 억압감을 없애 주는 것이다. 유창성을 갖기 위해서는 언어학습에 쓰이는 자료가 학습자에게 친숙한 것이어야 하며, 언어학습의 목표도 언어형식의 암기 보다는 의사소통이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일반적인 영어의 구사능력을 향상하도록 교사는 도와주어야 한다 [2].

한편, 외국어학습자의 유창성과 정확성은 외국어의 구사능력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유창성의 기준은 5개의 요소로 이루어진다[3]. 첫째, 주어진 시간에 말하는 단어의 총수, 둘째, 생각을 위한 멈춤의 수, 셋째, 단어와 구, 그리고 절의 수, 넷째, 오류 수정을 위한 오류 고친 수, 다섯째, 발화의 평균 길이 등이다. 정확성의 경우, 문법, 어휘, 발음, 사회언어학적 능력, 화용론적 능력(pragmatic competence), 등이 정확성을 가름하는 척도이다.

언어를 안다는 것은 문법적인 규칙을 아는 것 만 아니라, 언어적 체계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언어의 정확성과 유창성은 언어학습의 성공을 좌우하는 2가지 요소이다. 제 2언어학습에서 언어의 정확성과 유창성은 의사소통적 능력을 함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리고 제 2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나 사회에 따라 그 영어를 학습하는 목적과 방법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환경이므로, 제한된 목표언어의 노출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영어습득이 힘들다. 또한 영어 실력을 결정하는 척도로 영어시험을 통한 점수로 평가를 해 왔기 때문에, 시험에 맞춘 영어교육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영어교육의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의 달성이기보다 시험점수의 향상에 있었던 것이다. 영어시험의 유형도 문법과 정확한 번역을 통한 독해 문제풀이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영어교육은 정확성을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양상으로 흘러왔던 것이다. 그 결과, 문제풀이를 위한 문법과 개별단어의 뜻, 구문 속에서 정확한 문제풀이가 교육의 주류가 되었고, 의사소통능력의 함양과는 거리가 먼 현실을 만들어내었다. 이런 맥락에서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정확성과 유창성의 요소 중에 어떤 요소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육방법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언어의 유창성은 정확성에 기반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제 2언어의 이해가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고, 제 2언어의 습득도 제 1언어의 습득과 같아야 한다는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언어의 정확성과 유창성의 구분은 Brumfit(1984)에 의해 처음으로 정의되었는데, 정확성 활동은 패턴 훈련(pattern drill)과 같은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훈련을 통해, 언어형식(form)을 학습하는 행위로 보았고, 유창성 활동은 다독(extensive reading)이나 정보공란(Information Gap)채우기와 같이, 내용 위주의 사고력에 기반을 둔 습득행위로 보았다[4]. 이 유창성 활동은 학습자들이 이미 학습한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확성은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언급하고, 학습자가 올바른 문법규칙을 알고 정확하게 말하며 쓸 줄 아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유창성은 의사소통의 효율성(proficiency) 정도를 지칭하며, 쉽고 효율적이며 자동적으로 멈추지 않고 쓰거나 말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런데, 실제상황에서는 정확성과 유창성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에는 두 요소

가 다 필요한 것이다. 다만, 그 2 요소를 동시에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요소를 먼저 가르치느냐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Brumfit(1984)는 언어의 4기능 활동을 유창성과 정확성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4]. 읽기에서 다독(extensive reading)은 유창성을 목적으로 하며, 정독(intensive reading)은 정확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다. 쓰기영역에서는 자유스런 상황적 쓰기(free and situational writing)는 유창성을 목적으로 하고, 통제적 쓰기(controlled writing)나 유도적 쓰기(guided writing)는 정확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듣기연습은 정확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자유로운 듣기는 유창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본다. 또한, Johnson(1979)은 유창성 중심 활동은 학습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언어 4기능을 위한 과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5]. 그리고 자연적인 상황의 교실에서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때, 제 2 언어수업에서 대화의 내용은 학습자가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제 2 언어의 최대한의 노출이 언어습득에 중요하기 때문에, 교실 밖에서도 학습자는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2 언어상황에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 언어에 노출이 용이한 읽기가 유창성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읽기유창성이란 속도의 정확성과 적절한 표현능력을 가진 읽기를 언급하고 있다. Miller(2007)의 경우, 유창성을 속도, 운율, 표현 구성, 억양, 속도 조절, 이해의 조합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는 만약 텍스트의 난이도가 독자가 해독하기에 너무 어렵다면, 파닉스에 대해 사고를 많이 할 필요가 있게 되므로, 이해에 대해 상대적인 중요성이 적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6].

제2 언어학습 환경에서 유창성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읽기기술이 많이 쓰이고 있다. 학습자가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읽는 반복읽기(Repeated Reading)가 그 중 하나이다[7]. 반복읽기는 읽기 안내와 함께, 텍스트를 구두로 읽는 접근법과 테이프를 텍스트를 들으며 큰 소리로 읽는 방법이 있다(Hall, 2006). 이러한 읽기는 읽기교육의 귀중한 도구로 활용되고, 장시간에 걸쳐 다독을 할 경우, 유창성을 늘리는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다[8].

유창성을 늘리는 또 다른 읽기기술은 함께 읽기(Shared Reading)인데, 이것은 교사가 스토리를 학습자와 함께 읽으며, 지도하는 상호작용식 교육방법이다. 이

경우에, 텍스트는 모든 학습자가 분명히 볼 정도로 커야 하며, 텍스트의 읽기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방법은 젊은 학습자에게 더욱 효과가 있고, 유창성을 늘리는 세부기술로 반복읽기와 결합하는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9]. 결국, 유창성은 반드시 읽기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창성이 읽기 이해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구두로 읽기를 하는 것이 유창성을 향상 시키는데 아주 중요하다. 반복읽기(Repeated reading)와 함께읽기(Shared reading)는 단계적으로 읽기를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유창성을 향상 시키는데 관련이 있다. 그 중에서, ‘함께 읽기’는 유창성 향상에 상대적으로 많이 기여하는데, 그 이유는 삽화를 통해 상상력이 증대되고, 스토리에 대한 예상을 토론하는 과정이 있으며, 스토리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창의적인 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내용을 담은 책은 보다 크고, 색상이 다양하고 삽화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습자가 상호 토론이나 발표를 쉽고 자신있게 할 수 있고, 영어의 자동성(Automaticity) 향상을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합창 읽기는 여러 학습자들이 동시에 읽음으로써, 학습자의 언어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춰주고, 외국어읽기에 대한 참여를 도모해 준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다른 학습자의 목소리에 참여하는 능력은 함께 읽기의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다.

Table 1. Comparison of Accuracy and Fluency

	Accuracy	Fluency
Purpose	- Learners' production for individual words and sentence structure	- Spontaneous communicative competence for language skills
Materials	- Individual sentences and words - Context-free text	- Holistic and authentic text
Activities	- Focus on target language - Predictable learners' response - Evaluation by linguistic errors	- Focus on information and ideas - Unpredictable learners' response - Evaluation by expressions of critical thinking - Authentic tasks

Table 1에서 보듯이, 정확성은 단어나 문장구조, 그리고 개별소리의 정확한 표출을 목적으로 하고, 유창성은 언어 4기능의 자발적인 의사소통능력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사용되는 텍스트의 경우, 정확성은 실제적 상황이나 목표언어의 맥락이 부족한 개별단어나 문장으로 구성되며, 개별적인 단어나 문장의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유창성의 경우, 텍스트는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전체담화로 구성되며, 실생활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다. 유창성의 경우에 텍스트 구성은 문장이나 단어 분석이 목적이 아니라, 텍스트 내용의 감상과 이해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다. 실제 과업의 경우, 정확성의 과업은 오류수정이 중심이 되며, 평가도 학습자의 오류수로 평가를 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반응이 예상되는 가운데,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과업은 목표언어의 문법적 오류나 개별 단어의 뜻, 개별 단어의 발음 등에 초점이 맞춰지므로, 실제생활과는 관계없는 과제로 구성된다. 반면에, 유창성 활동은 의사소통에 목적을 두므로, 실제 생활을 토대로 정보교류와 사상표현이 중심을 이룬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가 존중되므로, 수업 활동에서 학습자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렵고, 평가도 사고력 표현과 이해력이 기준이 된다.

3. 연구사례 및 연구방법

제 2언어습득을 위한 읽기유창성에 관한 연구사례는 영어발음 훈련이나 말하기 훈련을 위한 연구들이 많은데, 최근에 와서는 읽기유창성이 영어학습의 4기능 훈련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의 방향이 옮겨가고 있다. Rasinski(2004)는 유창성의 연습법으로 유창한 읽기 따라하기, 반복읽기, 테이프 들으며 읽기, 읽으며 끊어읽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9]. 그 중 대표적인 접근법이 구두반복 읽기(Repeated Oral Reading)와 독립적 묵독(Independent Silent Reading)이다. 구두 반복읽기의 실험결과, 상당한 정확성의 향상, 자동성 증가, 운율의 향상을 나타내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7]. Chomsky(1978)도 테이프를 들으며, 동시에 반복읽기를 하는 것은 텍스트 연습이나 글 이해를 위한 유창성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10]. 반복읽기는 상대적으로 쉬운 텍스트를 사용하여 학습자가 읽는 것을 의미하며, 텍스트의 특정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음원의 도움을 받으며 읽는 것이다. 이것은 자동성이론에 따르며, 학습자들의 단어인지 자동성 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동성이 향상되면, 읽기속도가 빨라지고, 이미 읽어본 글에 대한 이해와, 새로

운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Gorsuch와 Taguchi(2008)는 11주동안 보완적으로 진행된 반복읽기 수업결과, 학생들은 이전에 연습하지 않았던 새로운 글에 대한 읽기속도도 꾸준히 향상되는 것을 경험했다[11]. 반면에, 독립적 묵독도 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실험결과를 보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 실험에서 실험집단은 하루에 40분씩 독립적으로 읽었고, 통제집단은 하루에 15분씩 읽었다. 읽기능력과 읽기에 소요된 시간사이에는 상호관계가 있었다. 읽기수준이 낮은 집단은 많은 수준이 투여되어도 유창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읽기수준이 높은 집단은 시간이 투여 될수록 읽기의 향상도가 있었다. 결국, 독립적 묵독은 읽기기술 수준이 높은 학습자에게는 유창성의 요소와 읽기성취도를 높여주나, 낮은 읽기기술 수준의 학습자에게는 별 효과가 없었다[12].

한편, 읽기 유창성은 외국어 교육에서 정확성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 또한, 읽기 유창성은 유창한 읽기, 읽기 속도, 다독 등을 향상시키며, 읽기 이해능력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읽기 유창성은 영어교육에서 영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13]. 유창성은 읽기자가 훨씬 많은 양의 제 2언어입력을 경험하고, 자동적 단어 인식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어휘 지식에 대한 포괄적 능력을 키워준다[14]. 게다가, 읽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유창성 개발은 읽기 발전을 위한 교과과정과 교육목표가 되어야 한다[15].

결국, 유창성 발달은 읽기속도 개발, 읽기 미디어 활용, 시간내 읽기, 반복읽기, 읽기속도 조절, 단어 인식연습, 다독과 같은 훈련을 통해 증진된다. 또한, 읽기관련 과업은 유창성과 이해를 동시에 영향을 준다. 구조적 요소를 찾기 위해서 텍스트를 읽거나 글의 요지를 찾기 위해, 텍스트를 읽기, 선행 읽기와 정보를 연결하기 위해 읽기, 저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텍스트를 읽기, 읽기 이해문제를 대답하기 위해 텍스트를 읽기, 텍스트 내용의 진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텍스트를 읽기, 그리고 저자가 견지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텍스트 읽기 등이 유창성 훈련을 위해 학습자의 이해능력을 동시에 키워주는 과업이다.

4. 유창성개발을 위한 다독 사례연구

지금까지, 읽기 유창성은 언어의 이해에서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외국어교육 상황에서 영어는 다양하고 폭넓은 내용을 학습자에게 노출시키고, 학습자가 최대한으로 학습내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언어습득에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외국어환경하의 학습자들은 교실 밖에서 목표언어 환경을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접근법이 쉬운 텍스트를 통한 읽기에 전념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목표언어 환경에 노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다독인데, 다독은 읽기유창성을 가져온 뒤에, 읽기정확성을 가져오는 보편적 제1언어습득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학습방법이다. 또한, 다독은 제2언어학습의 쓰기를 비롯한 언어기술 전반에 유창성 향상을 가져온다. 그러나 쓰기의 정확성 측면에서 보면, 다독을 바탕으로 문장들의 구조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을 연결하면서, 단어들의 문법적 특징을 연결하는 것이 학습자 쓰기의 정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쓰기 문체의 지속되는 반복과 다양한 텍스트구조나 단어는 학습자로 하여금 유창성과 정확성면에서 쓰기능력 향상을 가져온다. 또한, 다독은 많은 어휘와 통사 구조, 등의 향상에 기여하여 제2언어 학습자가 목표어를 습득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16]. 특히, 어휘학습에 있어서, 다독은 가장 효과적인 학습전략이고, 능률적인 방법이다[17]. 읽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특정 언어능력이 더 많이 발달한다[18].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다독은 보다 유창한 쓰기능력은 물론, 쓰기 표출능력의 총체적 향상도 가져온다[19].

유창하게 읽기 위하여 학습자는 자신의 언어 구사능력에 맞는 내용을 읽어야 한다. 학습자의 언어수준보다 높은 텍스트를 읽으면, 학습자는 언어의 해독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언어수준에 맞는 내용을 읽으면, 유창성을 개발할 수 있다. 읽기가 유창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읽기를 즐기지 못하며, 많이 읽지 못한다. 읽기연습이 부족하게 되면, 유창성 향상을 가져오지 못하며, 읽기를 좋아 하지 않게 된다. 한편, 유창한 독자는 읽기를 즐기게 되며, 그 결과, 더 많은 양을 읽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읽기에 대한 동기를 더 많이 갖게 된다. 그리고 읽기에 대한 능숙도가 계속 높아지게 된다.

한편, 다독과 관련한 유창성관련 연구에서, MacGowen-Gilhooly(1995)의 유창성우선 교과과정(Fluency First Curriculum)은 유창성의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20]. 이 실험에서, 읽기와 쓰기의 유창성을 강화하기 위해, 1주일에 70페이지씩 1,000 페이지를 읽고, 첫 학기 동안에 10,000 단어를 써야 했다. 처음에는, 많은 과제와 문법수

업을 하지 못했지만, 읽기와 쓰기의 갑작스런 향상을 보기 시작했고, 거의 2배 정도의 읽기 유창성의 향상이 있었다. 쓰기시험 합격률도 35%에서 56%로 증가했다. 이 수치는 원어민과 거의 같은 수치였다. 결론적으로, 읽기와 쓰기연습을 많이 하다보면, 학습자의 유창성과 능숙도가 현저하게 증가되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읽기 유창성이란 읽기가 원어민 수준에 도달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어식 사고로 영어의 정상적이고 자연스런 흐름을 느끼는 능력을 가르키는 것이기도 하다. 제 2언어 연구자들은 영어학습자들이 정기적인 다독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 제 2언어로서 책을 읽고자하는 동기가 증대되고, 동시에 유창성의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실험과 연구사례가 제시하듯이, 다독은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우리에게 유창성의 커다란 증대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알수 있었다. 우리는 외국어를 학습할 때 원어민 수준의 유창성을 기대하게 된다. 그런데, 원어민 수준의 유창함에 대하여, Lampariello(2014)는 유창성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21].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휘를 구사하는 기본 유창성(Basic Fluency), 학습자의 경험이나 친구, 나라 등의 생활에 따라 달라지는 어휘를 구사하는 개인적 유창성(Personal Fluency), 원어민처럼 각 언어의 부분들을 종합해 내는 능력을 표현하는 원어민같은 유창성(Native-like Fluency), 그리고 원어민 같은 유창성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구사하는 어휘를 표현할 수 있는 리터러시(Literacy) 등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있는 것은 원어민 수준의 유창성보다 상위 개념에 리터러시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 따르면, 유창성이 완성된다는 것은 학습자가 목표언어에 대해, 기본적인 어휘를 학습하고 인지하는 단계를 우선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 어휘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기본 유창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단계는 이러한 기본 어휘 습득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영어를 창조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학습자 자신의 배경지식과 선행적 경험을 바탕으로 목표언어를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적용하며 소통하는 단계이다. 다음 단계는 원어민 수준의 단계로, 원어민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직관과 유창성을 갖는 단계이다. 보편적으로 이러한 유창성의 단계는 영어의 완성된 단계이다. 그러나 교육의 정도나 전문

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수준의 유창성은 그 이상의 유창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에 대한 음성학적인 수준에서의 원어민 같은 유창성의 단계를 뛰어 넘어, 내용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유창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유창성을 이루기 위해서, 다독은 인지적, 정의적, 언어적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읽기 유창성을 제공 해준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유창성이 바로 리터러시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독을 통한 리터러시 개발은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우리에게 올바른 읽기 유창성의 방법을 제시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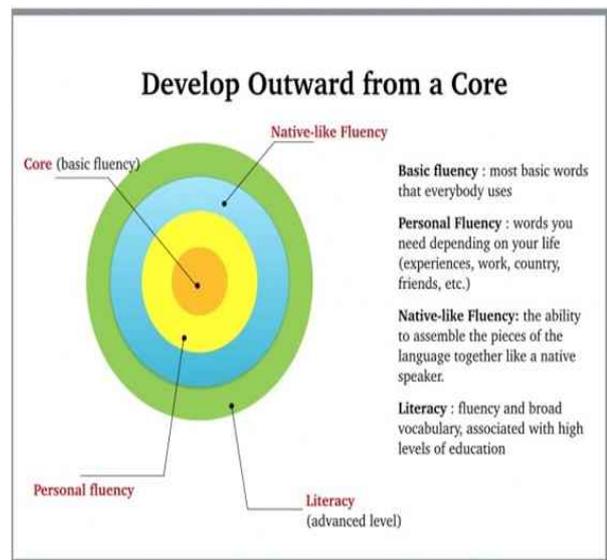


Fig. 1. Developmental Step of Fluency[21]

Fig. 1에서 보듯이, 유창성의 단계는 기본적 유창성, 개인적 유창성, 원어민 같은 유창성, 리터러시 유창성의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창함의 본질은 언어를 단지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문제를 벗어나서, 화자의 생각을 창조적으로 조합하는 능력인 리터러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제 2언어교육의 경우에는, 목표언어에 가장 많이 노출 할 수 있는 읽기 방법인 다독을 통해 유창성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유창성 습득 방법임을 제언하고 싶다[22].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제2 언어읽기에서 유창성의 개발은 다독(extensive reading)을 통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을 알수있다. 다독은 읽기유창성의 개발은 물론, 읽기속도를 증가시키며, 많은 양의 다양한 읽기자료를 학습자에게 노출시키고, 읽기의 즐거움과 이해를 용이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언어연구가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23]. 많은 신경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읽기에서 빠르게 읽을수록, 학습자 두뇌의 활성화를 통해, 기억에 오랫동안 정보를 저장 할 수 있게 하고,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더욱 더 잘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독은 언어의 형식보다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읽기 때문에, 학습자는 사고를 바탕으로 유연적이고 자연적인 학습을 이루게된다. 한편, 읽기유창성은 자동성(Automaticity)을 의미하는데, 읽기유창성은 텍스트를 동시에 해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리킨다[7]. 또한, 읽기유창성에 대해서 적절한 속도, 정확성, 구문분류(Phrasing), 표현 등이 중요하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24]. 한편, Blevins(2005)는 유창한 학습자는 빠르게 읽을 수 있고, 단어를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구(phrases)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 그는 단어를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정확성 또는 단어 해독의 용이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Rasinski(2004)는 읽기유창성의 요소를 단어해독의 정확성, 자동화처리과정, 운율적 읽기(Prosodic Reading)라고 주장하며[9], 해독(Decoding)상에서 학습자의 자동화처리하는 읽기속도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읽기유창성의 요소는 다독을 통해 강화 될 수 있다. 다독의 경우,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는 시각적 어휘(Sight Vocabulary)는 읽기유창성의 기본 요소인데, 많은 시각적 어휘를 가질수록 학습자는 텍스트를 인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독을 통해 많은 양의 텍스트를 읽는 것이 유창성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15].

결국, 외국어환경하의 영어 읽기유창성은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 그 효과를 주목받기 시작했다. 또한, 읽기유창성은 외국어교육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특히, 다독은 유창성과 관련하여, 제 2언어 학습자의 읽기속도 향상에 기여하며, 일반적인 영어 능숙도를 이루는 동시에, 의사소통능력을 능률적으로 향상시키는 영어 학습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다[25]

이러한 유창성에 대한 관심은 제 1언어습득과정을 통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언어의 본질이란 측면에서 볼 때, 언어가 습득되는 과정과 순서는 제 2언어와 제 1언어의 습득과정과 순서가 같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외국어와 같은 제 2언어 학습은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황 속에서, 주로 언어 형식(Form)에 근거한 정확성을 위주로, 문법을 통한 정확한 번역이나, 문형의 반복 훈련, 개별적 단어의 기계적 암기, 등을 하였다. 내용(Content)이나 사고력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틀을 추종하는 언어교육이었다. 그러한 정확성 위주의 교육은 시험 성적을 올리는 데는 기여했지만, 본질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을 통한 언어교육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이러한 언어교육의 철학 부재는 언어학자들에 의해, 제 2언어 학습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고, 마침내, 현대영어교육은 이러한 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제 2언어 학습도 제 1언어 학습과 마찬가지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창성교육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제 2언어학습에서 유창성우선의 교육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의사소통능력을 달성해 주는 동시에, 나아가서 정확성도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특히, 유창성을 강조하는 학습자중심의 다독법은 인지적, 정의적, 언어적 측면에서, 의사소통능력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게 하며, 점진적으로 정확성도 향상 시킬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우리 영어교육에서, 유창성우선의 교육이 어떻게 효율인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W. Blevins. (2005). The importance of reading fluency and the English language learner. *The Language Teacher*, 29, 13-16.
- [2] P. Nation. (2003). The role of the first language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Asian EFL Journal*, 5(2), 1-8.
- [3] M. Nakano, et. al. (2001). A Quantitative analysis of annotated learners' spoken corpus. Poster Presentation at JACET 40th Annual Convention. Sapporo: Fuji Women's University.
- [4] C. J. Brumfit. (1984). *Communicative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The Roles of fluency and accu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5] K. Johnson. (1979). The production of functional materials and their integration within existing language-teaching programmes. *ELT Documents*, 76(1), 16-25.
- [6] D. Miller. (2007). Making the most of small groups:

- Differentiation of all*, Ontario, Canada: Pembroke.
- [7] S. J. Samuels. (1979). The method of repeated reading. *The Reading Teacher*, 32.
- [8] H. Innot & Rogers. (1999). Reading naturally: A strategy to increase oral reading fluency. *Reading Research and Instruction* 39(1), 27-38
- [9] T. V. Rasinski. (2004). *Assessing reading fluency*. Honolulu, HI: Pacific Resources for Education and Learning.
- [10] N. Chomsky. (1978). The US media and the Tet offensive. *Race & Class*, 20(1), 21-39.
- [11] G. Gorsuch & E. Taguchi. (2008). Repeated reading for developing reading fluency and reading comprehension: The case of EFL learners in Vietnam. *System*, 36(2), 253-278.
- [12] S. J. Samuels & Y. Wu. (2003). *The effects of immediate feedback on reading achievement*.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Available online from http://www.tc.umn.edu/~samue001/webpdf/immediate_feedback.pdf.
- [13] L. C. Ehri. (1998). Grapheme-phoneme knowledge is essential for learning to read words in English. In J. L. Metsala & Ehri, L.C. (Eds.), *Word recognition in beginning literacy*. Mahwah, NJ: Erlbaum.
- [14] R. L. Allington. (1983). Fluency: The neglected reading goal. *The Reading Teacher*, 36, 556-561.
- [15] W. Grabe. (2009). *Reading in a Second Language: Moving from Theory to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6] A. Hunter. (2009).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outside reading on reading tendency and English proficiency. Join the literacy club. *Principal Leadership*, 9(9), 36-39.
- [17] M. Ghanbari & A. Marzban. (2014). Effect of extensive reading on incidental vocabulary retention.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16, 3854-3858.
- [18] T. Bahrani. (2011). The Role of Technology in Language Learning. *Canadian Social Science*, 7(3), 114-118.
- [19] R. Ahmadi. (2010). An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extensive reading on the writing ability of EFL Students: The effect of group work. Retrieved January 19, 2016, from <https://www.questia.com/.../an-investigation-of-the-effects-of-extensive>.
- [20] A. Mac Gowen-Gilhooly. (1995). Fluency first: Reversing the traditional ESL sequence. City College of City University of New York Journal of Basic Writing, originally 1991 (updated 1995). Retrieved from TESL-L Electronic Discussion Forum for teachers of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 [21] How to reach native-like fluency in a foreign language. <http://www.thepolyglotdream.com/nativefluency/>
- [22] R. F. Hudson, H. B. Lane & P. C. Pullen. (2005). Reading fluency assessment and instruction: What, why, and how? *The Reading Teacher*, 58(8), 702-714.
- [23] R. R. Day & J. Bamford. (2002). Top ten principles for teaching extensive reading.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14, 136-141.
- [24] M. Martinez, N. L. Roser & S. Strecker. (1998/1999) "I never thought I could be a star": A reader's theatre ticket to fluency. *The Reading Teacher*, 52(4), 326-334.
- [25] R. Khan, E. Durrani, N. Chand & H. Anwar. (2010). Influence of feed supplementation with Cannabis sativa on quality of broilers carcass. *Pakistan Vet. J.*, 30(1), 34-38.

신 규 철(Kyu-Cheol Shin)

[정회원]



- 1985년 2월 :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 1987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영어과 석사
- 2001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과 박사
- 2002년 3월 : 미국하와이대학교 언어학과 연구교수
- 2003년 3월 : 극동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관심분야 : 언어습득, 언어교육
- E-Mail : 811shin@kdu.ac.kr